

현대자동차(주)는 용역깡패를 동원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나서라!

울산 1공장에서 400여명의 조합원들이 11월 15일부터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을 전개하여 파업 투쟁 22일차를 맞이했다. 파업 투쟁 중에도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주)와의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교섭이 아니라 ‘협외’를 하자는 공문을 보내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를 교섭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측은 이렇게 대화에는 소극적이면서, 11월 15일 파업 돌입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리자와 용역직원을 동원해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울산에서는 파업 돌입 당시, 관리자와 용역직원이 최루액을 분사하고 소화기로 물을 뿌려 시야를 가린 뒤, 공장안에 있는 프레임, 볼트, 너트 등 각종 쇠로 만든 자재를 던져 현장에 있던 대부분이 자재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폭력 상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50여명이 연행되고, 10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또한 30일에는 2공장에서 불법대체인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 350여명의 조합원들을 2천여명의 관리자들을 동원해 폭행하고 불법 납치하여 경찰에 인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역시 부상을 입은 채 연행된 조합원이 32명에 이르며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울산 뿐만 아니라 아산, 전주에서도 폭력과 납치가 이루어졌다. 아산에서는 11월 17일 지회장 및 간부가 납치되었다 풀려난 일이 있었으며, 12월 1일에도 비정규직지회의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천막을 치던 정규직들을 사측 관리자 등이 폭행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전주에서도 역시 12월 1일에 10여명이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폭력진압이 있었으며, 바로 어제인 12월 6일에는 노조간부를 납치한 차량을 막아선 조합원을 차로 밀어버리려는 시도도 있었다.

20여일의 파업과정에서 사측의 폭력에 의해 지금까지 병원치료를 받은 인원이 120여명에 이른다.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상황에 노동자들을 처하게 해놓고, 노동조합을 폭력세력으로 몰면서 접거를 풀어야만 대화를 하겠다는 태도가 말이 되는가! 우리는 사측 관리자와 용역직원에 의한 무차별적인 폭행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이 명시한 불법파견 노동자를 1만 명이나 고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회장 정몽구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탄한다.

현대자동차(주)는 표면적으로만 대화를 주장하지 말고, 즉각 폭력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협외’가 아닌 ‘교섭’에 나서 이 사태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 현대자동차 사측은 폭력행사를 즉시 중단하라!
-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의제로 교섭에 나서라!

[첨부자료 -1]

현대자동차 사측의 폭력진압 일지

11/15	- [울산]오전 6시 30분 시트1부 프린트라인에서 원청·하청 관리자들과 용역경비로 보이는 자 300여명이 아무런 경고나 의사표시 없이 분말소화기, 최루액을 분사하고, 작업장에 있는 볼트, 너트, 자재파렛트, 용접프레임 등을 던지면서 조합원들을 폭행. 총 49명 연행, 부상자 중 10명 병원 이송
11/16	- [울산]1공장 접거파업 중인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들과 용역직원들이 무차별 폭행. 비정규직지회 5명이 사측 관리자들의 폭행에 의해 부상.
11/17	- [울산]오전 9시 3공장 파업을 위해 의장부로 넘어가고자 했으나 용역경비와 관리자 600여 명이 대기하다 진입을 막기 위해 폭행. 용역 장갑에 볼트 들어있어, 폭행당한 조합원 다수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음. 이 과정에서 17명이 용역에 의해 납치, 울산동부서로 연행. - [울산]오전 2,3공장 파업 시도 중 관리자들과 용역의 폭력에 의해 다수의 부상자 발생. 6 명이 병원으로 이송. - [울산]오후 1시 30분경, 명촌 쪽문 부근에서 용역들 비정규직지회 조끼가 보이면 닥치는대로 폭력 행사. 이 과정에서 3명의 조합원 납치, 울산동부서로 강제인계하여 연행. - [아산]아침 출근선전전 후 사측관리자와 용역이 비정규지회 지회장과 대의원을 공장 정문 앞에서 납치
11/18	- [울산]오후 3시 30분경, 1공장 공장장이 와서 "혹시 위험물질이 있는지 공장장으로서 직접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이유를 들며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을 직접 보러가겠다고 함. 정규직 대의원들이 공장장에게 돌아가라고 하는 과정에서 사측 관리자들을 동원해 농성장으로 무력 진입 시도. 정규직 대의원 1인 실신해서 병원으로 이송. 갈비뼈 부러지는 부상. 4시 30분경 추가로 정규직 대의원 1인이 부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됨.
11/20	- [울산]11분 30분 윤여철 부회장, 강호돈 부사장이 퇴거명령서 가지고 1공장 진입 시도. 조합원 14명 끌려나오고 1명 병원 이송.
11/30	- [서울]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1인 시위 용역경비들 방해에 저항하자 조합원 한 명 당 10여명의 용역경비가 끌어내며 폭행 - [울산]2공장 22라인 불법대체인력 저지 투쟁 중 100여명이 조합원을 사측 관리자 2천여 명에 의해 폭행, 5명 병원 이송, 32명 부상·연행 - [울산]본관식당에서 식사 중이었던 2공장 이진환 대표와 4명의 조합원이 회사측에 의해 갑작스레 폭력을 당하며 구내버스로 납치됨.
12/1	- [전주]전주공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주간조 6시간 파업 돌입하자 10시30분에 관리자 300 명을 투입해, 퇴거명령서를 읽고 조합원들을 끌어내면서 폭력 행사. 10여명이 중상 입어 병원 이송, 수십명이 찰과상 등 부상 - [아산]정규직 조합원들이 비정규직지회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천막 세우는 중 사측이 막아 1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총 3명 부상
12/2	- [아산]저녁 7시 20분경 정규직 관리자, 경비 200여명이 농성중이었던 조합원 등 밀어내고 지게차로 컨테이너 농성장을 떠서 트럭에 싣고 도주
12/3	- [울산]포크레인으로 외벽 철거. 동시에 농성장으로 하이바와 방패를 든 용역 투입. 정규직 대의원 3명 부상, 여성조합원 1인 실신
12/6	- [울산]접거중인 1공장에 사측 관리자와 용역이 침탈시도. 막으려는 조합원들에게 폭력 행사. - [전주]트럭공정을 멈추는 파업 진행 중, 사측 400명 가량의 원청 관리자 모아 파업현장 침탈. 노조간부를 실은 차량을 조합원이 막아서자 사측 관리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야, 밀어버려' 라며 지시하여 차량으로 밀림. 1명 호흡곤란으로 병원 이송, 5명 찰과상 등 부상
12/7	- [울산] 새벽 야식시간에 피켓 선전전 진행 후 씨클룸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조합원을 관리자 3명과 용역 2명이 끌어내어 폭행. 고막 손상 등 심각한 부상

증언 자료

[증언 1]

정경훈 (15일 시트1부 14 프론트 상황)

회사안에서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럴지 몰랐다.”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을 막으려는 시범케이스로 우리를 때리는 것 같다. 이렇게 극심하게 맞을지는 몰랐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회사안에서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이럴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밖으로 나와서 경찰한테 인계가 될 때까지도 구타를 당했다. 나는 심하게 피를 흘렸는데, 경찰은 어떤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약자편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증언 2]

정진엽 (15일 시트1부 14 프론트 상황)

“공장안에 배치된 프레임, 박스, 각종 자재를 던졌다. 전부 쇠로 만든거
다”

“15일 오후 새벽, 14라인에 대기하고 있던 조합원들에게 300여 명의 사측 관리자와 용역들이 최
루액을 뿌리고, 소화기로 물을 뿌리는 와중에 우리가 뒤로 밀려났다. 그 때 그들이 공장안에 배치
된 프레임, 박스, 각종 자재를 던졌다. 전부 쇠로 만든거다. 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맞았다.
나는 눈 바로 밑에 맞았고, 머리에 맞은 사람도 있었다. 그 상황에 부상을 많이 당했다. 그거 맞고
나니까 정신이 없었다. 떨어져 있으니깐 그 사람들이 라인앞으로 들어왔고, 막지도 못하겠고 그냥
끌려나왔다. 우리가 전혀 저항할 수도 없는 과정에서도 계속 우리를 때렸다. 나오는 과정에 정말
많은 구타를 당했다. 차에 갈때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 내 잠바를 뒤집어 씌우고 앞을 제
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없이 맞았다. 어디서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 밖에 나와서야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다”



[증언 3]

유지훈 (17일 3공장 파업)

“ 용역들 장갑에 볼트가 들어있었다 ”

“나는 도장부에 근무한다. 파업지침이 떨어져서 수요일 아침 9시에 의장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밖에 용역과 관리자가 600명 대기하고 있었다. 문으로 가려는 걸 제지하니까, 라인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걸어가는데, 용역과 관리자가 우르르 뛰어 와 순식간에 모여서 때리고 밟기 시작했다. 용역들 장갑에 볼트가 들어있었다. 그걸 맞고 대부분 갈비뼈 5대가 나갔다. 어떤 분은 인증이 끊어져서 대대적으로 수술받은 사람도 있다. 여성조합원들도 때렸고 그것을 막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비뼈가 부러졌다. 의장부에 있는 조합원과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구타가 시작되었다. 양팔이 묶여있는 상황인데도, 양팔, 옆구리, 등을 가격했다”

